

중소 10곳 중 8곳 “완구·학용품 KC인증제 부담·불합리”

중기중앙회, 205곳 대상 실태조사
매년 기업당 평균 18개 품목 인증
비용 평균 109만원, 연 1498만원
“인증비용 감면 등 제도개선 필요”

“종류별로 인증을 받다보니 인형 하나도 레이스, 면 등 재질별로 구분해 인증을 받고 색깔별, 무늬별로도 각각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인증 비용만 약 150만원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완구나 학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KC인증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매년 평균 18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거치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총 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취득 비용부담’이었고,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사항도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감면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완



구·학용품 제조 중소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KC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KC인증 전반에 대한 부담·불합리한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6.59점을 줬다. 특히 2021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선 85점 이상을 줬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이 부담과 불합리를 더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2021년 기준으로 기업당 KC인증 품

목수는 평균 18개였다. 검사수수료는 평균 109만원, 검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5억~10억원 미만 기업은 KC인증을 위한 총 비용이 3905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을 위한 총비용이 기업들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미만인 36.2%로 가장 많았다. 5% 이상 된다는 답변도 22.1%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절반은 안전 기준 강화로 인해 KC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이 더 늘

어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중금속 검사나 프롤레이트계 가스제 검사가 대표적이다. 중금속 검사의 경우 추가 비용은 평균 약 35만원, 중금속 검사를 더 받아야 하는 품목은 평균 29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중금속 검사를 위해 평균 685만원의 비용을 더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소요기간도 평균 2.2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 완구·학용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꼽고 있는 KC인증제도 애로사항(중복응답)은 ▲KC인증 취득비

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개선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인증취득비용 감면(78%)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단순 재인증시 기존 인증번호 부여(58.5%) ▲5년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 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친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체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한킴벌리, 첨단부직포 설비에 1430억 투자

2025년 매출 2조 목표로 2년간 투입
김천공장 티슈 10호기 등 2023년 가동

유한킴벌리가 내년까지 2년간 첨단 부직포 설비 등에 약 143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매출 2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1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생활용품 및 B2B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 제품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온 가운데 최근 약 1430억원 규모의 부직포 신규 설비 투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실행하고 있는 김천공장 티슈 10호기, 대전공장 탐폰 생산 설비 등의 대형 설비들도 2023년 제품 생산을 목표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

지 10년간 텐테크 코어 기저귀, 생분해성 생리대, 종이 물티슈, 요실금 언더웨어 등의 신기술 및 설비에 약 6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2024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부직포 설비는 세계 최고 품질의 부직포를 연간 1만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

신규 설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1 수준인 1데니아의 초극세사를 구현해 부드러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고강도를 실현한다.

이 설비에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부직포는 내수시장에 약 85%,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수출에 약 15% 비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부직포는 매년 20% 안팎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기저귀와 입는 오버나이트 생리대, 요실금 언더웨어 등 주요 제품 소재로도 활용해 생활용품 전반의 품질혁신과 환경성 개

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 부직포 설비가 들어설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은 세계적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스마트매뉴팩처링을 통해 제품 품질과 공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기 기저귀와 아기 물티슈, 영유아 스킨케어 등의 완제품과 부직포 소재 등을 생산·공급해 국내 생활용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김천, 대전, 충주에 각각 전문화된 생활용품 생산기지를 구축한 상태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회사는 선제적인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생활용품 시장 선도력을 강화해 2025년까지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엔 1조4671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지역가치 창업가 발굴·육성

오늘부터 창업가간 협업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기반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과제’를 2일부터 모집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가치 창업가가 역량을 키워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사이의 협업과제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모바일로 전송

코웨이, 알림톡 서비스 도입

코웨이가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사진)를 도입했다.

1일 코웨이에 따르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 수질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수질검사 성적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수질검사 알림톡 서비스는 접수부터 성적서 수령까지 일주일 가량 걸리던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였다. 특히 분석 완료 즉시 시험 결과서를



발급해 검사 당일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모바일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언제든 간편하게 확인하고 요청 시 우편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웰스, 구독상품 ‘건강 패밀리’ 선보여

롯데푸드와 전략적파트너십 체결

웰스(Wells)가 롯데푸드와 손잡고 구독 서비스 영역을 넓혀 ‘건강 패밀리’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1일 웰스에 따르면 이번엔 새롭게 선보이는 구독 상품은 지난 12월 교원그

룹과 롯데푸드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양사가 추진하는 공동사업 중 하나다. 기존 웰스팜 단일 서비스를 다른 영역의 구독 서비스와 연계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웰스는 이번 구독 상품의 콘셉트를 ‘건강한 생활, 건강 패밀리’로 내세웠다. 웰스팜 신규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푸드의 파스타류 유제품과 ‘쉐푸드(Chefood) 가정간편식’(HMR) 상품을 함께 1년 정기 구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독 상품 이용 시 매월 최대 3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세훈 “인수위 ‘구도심개발 특별법’ 환영…천군만마 얻어” /사진 뉴스시스
▲ ‘해외규격인증지원’ ESG·탄소중립 34종 추가…최대 1.5억

▲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하세요
▲ “직장 억울함 풀어드려요”…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심사 출석…공모 부인
▲ 5월, 실내 마스크·격리의무도 해제 될까…방역 대격변 예고 /사진 뉴스시스